



# 4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 일반 사양관리

4월에는 특히 황사 등으로 인해 가축방역에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의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기적인 소독과 목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을 단위로 공동방역 계획을 수립·점검해 보고 매주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이웃과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사료원료의 가격

이 계속해서 오르고 조사료 역시 수입쿼터 제한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급 조사료 생산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유향 농경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시기적으로 청예사료를 확보하여 급여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주변의 청초를 수확하여 이용하되 청예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7~10일간에 걸쳐 급여량을 서서히 증대시키며 사료 변경시 MUN(우유중 요소태 질소함량)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료급여량을 변경한다.

## 사양관리

기온상승과 일조량의 증가로 인하여 발정과 수태 및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는 번식계절이다. 통계적으로 4~5월경에 발정이 제일 많고 수태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번식에 유의하고 기록부에 번식 상황을 꼭 기록한다. 특히 분만 전·후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전반기 동안에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대사성 질병을 줄이는 핵

심기술이다. 임신우의 BCS(신체충실지수)가 3.7 이상으로 과비한 경우 분만후에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체중의 1.5%를 섭취하지만 신체충실지수가 3.2~3.6로 적정 신체충실지수(BCS)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료섭취량이 체중의 약 2.0%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분만전 적정 BCS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우사 특히 분만실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개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해 주고, 분만실은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생산된 송아지와 분만한 어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어난 송아지는 생후 1~2주 사이에 전기 제각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각을 실시한다. 산유량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양관리 보다는 적정 산유량과 번식에 초점을 맞춘 적정 영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분만 후 비유초기 산유량에 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체중감소로 인한 번식장애 및 케토시스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유

초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후사료 위주로 다량 급여할 경우 반추위 내 산도 하락으로 산독증 등 다른 질병이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적절한 조농비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TMR 급여 농가의 경우 외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조를 깨끗이 청소하여 사료의 기호성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 방역 및 위생관리

○ 대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중 체세포 등급에 따른 가격차이는 리터당 최대 77.25원(1등급과 4등급의 가격차)이다. 따라서 체세포 관리는 농가수익과 직결된다. 양질의 우유생산을 위한 수칙으로는 첫째, 착유전에 착유기의 압력과 맥동수를 항상 점검한다. 둘째, 유두세척 타올은 반드시 한 마리당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셋째, 유두세척을 실시한 후 마른 타올로 건조시킨 다음 1분 이내에 착유기를 부착한다. 넷째, 착유기 제거 후 즉시 유두침지

를 반드시 해준다. 다섯째, 착유한 원유는 빠른 시간내에 냉각시킨다. 여섯째, 위생관리를 위해 유방주위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준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CMT나 체세포수 검사를 한다. 여덟째, 비타민 E, 베타케로틴 등을 정기적으로 급여한다. 아홉째, 유두 침지액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체세포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계절별, 시료채취 시간별, 비유단계별,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체세포는 미생물이나 유방염 등의 감염에 따라 그 수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체세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잘 파악 대체하여 체세포수 증가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기계 관리와 초지 및 사료작물

사료가격 상승으로 유사비(유대중 사료비의 비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조사료 의존 일변도의 사양체계에서 이제는 자급 조사료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사양체계로 과감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안정적인 자급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유희 농경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재배작물을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수

수 파종의 경우, 중부지방은 4월 15일~20일, 남부지방은 4월 5일~10일 파종적이다.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퇴비(ha당 50M/T)와 인산질비료(ha당 200kg)의 사용이 필요하다. 옥수수는 고온작물이므로 생육초기의 저온 상태시 생육이 늦어지고 집초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제초제를 파종 후 3일 이내에 골고루 살포하며 추후 필요시마다 체초한다. 봄 언맥 및 유채를 파종하는 경우는 4월 상순까지 ha당 유채 15kg, 언맥 120kg을 파종한다. ㉞